

외국문학의 번역과 중국적 변용*

: 1921년~1922년 『소설월보』를 중심으로

김소정**

目 录

1. 들어가며
2. 편집장 선연빙의 문학과 개혁신학
3. 1921년~1922년 『소설월보』의 외국문학 번역과 중국적 변용
4. 나오며

1. 들어가며

주지하다시피 5.4시기(1917~1927년)는 중국문학의 근대화가 본격화되었던 시기로, 5.4 작가들은 신문학의 새로운 형식을 시험하고 방향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서양의 근대문학을 배워야 할 모범으로 인식하여 적극 수용했다. 그런데 이들의 번역 실천은 단순히 중국의 신문학을 창조하고자 하는 문학계 내부의 요청에 의해서만 추진된 것은 아니었다. 외국문학 번역에 종사했던 작가와 지식인들은 문학이라는 수단을 통해 중국 인민으로 하여금 사회악에 눈뜨게 하고, 국가와 국민을 구제하는 것이 자신들의 도덕적 임무라 생각했다. 이러한 도덕적 사명을 짊어진 번역가들은 번역에 중국사회를 변혁시키고자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2810)

**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시간강사

하는 강한 목적을 투영했고, 이들의 활발한 번역활동으로 말미암아 번역 수량은 급격히 증가하여 중국번역사상 전대미문의 고조를 기록했다.

본고는 1920년대 초기 중국 급진적 지식인의 외국문학 수용태도를 고찰하기 위해 그들의 번역 성과를 가장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소설월보(小說月報)』(이하 ‘월보’)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월보』는 1910년부터 1931년까지 무려 22년에 걸쳐 상하이(上海)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에서 발행한 대형 문학잡지로 외국문학의 수용과 중국문학의 근대화 과정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는 자료이다. 22년간 편집장이 5차례 바뀌었고, 왕윈장(王蘊章)(1~2권, 1910년 7월~1912년 3월; 9~11권 1918년 1월~1920년 12월), 윈티에차오(惲鐵樵)(3~8권, 1912년 4월~1917년 12월), 선옌빙(沈雁冰)(12~13권, 1921년 1월~1922년 12월), 정전두어(鄭振鐸)(14~18권5호, 1923년 1월~1927년 5월), 예성타오(葉聖陶)(18권 7호~20권 6호, 1927년 6월~1929년 6월), 쉬다오푸(徐調孚)(20권 7호~22권 12호; 1929년 7월~1931년 12월) 등이 거쳐 갔다. 이 가운데 『월보』의 성격을 확연히 바꾸었던 편집장 선옌빙의 역할은 가장 주목할 만하다. 1921년 제12권 1호부터 편집장을 맡은 선옌빙은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오락 위주의 원앙호접과 소설과 문언번역소설인 임역소설(林譯小說)¹⁾을 연재하던 경향에서 완전히 탈피했다. 『월보』는 신문학 작가들이 외국문학 및 서구의 문예사조를 번역하고 상호간의 견해를 교환하면서 이해를 심화시키는 장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하여 중국 신문학을 건설해나가는 진지한 장으로 탈바꿈했다. 따라서 선옌빙이 편집장으로 온 이후 『월보』는 서양 문예이론 및 작품에 대한 번역과 소개로 대부분의 지면이 채워졌다. 그 당시 선옌빙은 상하이의 중국공산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또 사회주의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참여형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월보』 개혁 방침 이면에는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을 추동하고자 하는 강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었다. 그리고 선옌빙이 편집장으로 있던 시기 번역을 투고했던 번역가들은 대개 중국공산당에 가입했거나 혹은 이에 호의적

1) 린수(林紓)의 번역소설을 의미한다.

이었던 중국의 급진적 지식인이었다. 따라서 1921-1922년간 『월보』의 외국 문학 및 문예사조의 번역에 관한 고찰은 1920년대 초기 중국의 급진적 지식인의 정치적 지향성과 외국문학의 번역 실천이 긴밀히 관련되어 있던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비록 선연빙은 1923년에 편집장을 사퇴하고 떠났으나 그의 외국문학 수용태도와 편집방침은 새로 온 편집장이자 문학연구회 동료 정진두어에 의해 계승되었고 또, 그의 번역은 이후로도 꾸준히 『월보』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선연빙이 편집장으로 있던 시기의 외국문학의 번역과 중국적 수용은 1920년 중후반 나아가 1930년대의 번역문단에 선구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편집장 선연빙의 문학관과 개혁 방침

앞서 말했듯이, 선연빙은 1921년 『월보』의 편집장으로 부임하면서 서양문학에 대한 번역과 소개에 열중했다. 그로인해 서양 문학과 작품, 그리고 서양문예사조 변천사 등이 중국작가의 창작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선연빙의 이러한 조치는 신문학 작가와 일반 독자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먼저, 그는 중국 신문학 작가들에게 외국의 선례를 소개함으로써 창작의 방향을 제시해주고자 했다. 당시 중국 작가들은 오락적이고 심미적인 전통문학을 폐기하고 신문학을 창조해야한다는 인식에는 동의했지만 어떻게 신문학을 창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던 중국작가들에게 외국의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신문학의 방향성을 확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이다. 이와 함께 문학이 사회변혁을 촉진시키는데 공헌했던 외국의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신문학 작가들이 중국 혁명을 이끄는 선구자가 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다음으로, 일반 독자들로서는 문학이 사회변혁을 이끈 외국의 사례를 통해 문학에 의지한 중국 혁명의 가능성을 신뢰하게 될 것이라 낙관했고, 나아가 문학에 의지하여 미래의 삶의 방향을 구체화

해갈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5.4 운동이 끝난 직후 다시 의기소침해지고 향락에 빠진 중국 지식인 독자들, 특히 청년 지식인들에게 번역된 외국문학이 분발심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키는 촉매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선옌빙은 바랐다.

『월보』의 외국 문학 수용에 있어, 선옌빙의 문학관과 개혁 방침은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에 들어가기에 앞서, 선옌빙이 1920년부터 제창한 ‘인생을 위한 문학’의 함의, 그리고 『월보』의 개혁 방침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1) 선옌빙의 문학관 : ‘인생을 위한 문학’

『월보』의 전면 개혁이 단행된 1921년 1월 제12권1호에서 선옌빙은 ‘인생을 위한 문학’을 제창하며 문학개혁의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했다.

“문학의 목적은 인생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사실의 방법을 사용하든지 상징과 비유의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그 목적은 인생을 표현하는 것이며 인류의 희열과 동정심을 확장시키고 시대적 특색을 그 배경으로 삼는다. 문학가가 표현해낸 인생은 전 인류의 생활이어야 하며, 예술적 방법으로 추호의 사심도 없고 조금의 주관도 없이 표현해낸다. 당연히 문학에서 다루는 인간은 사상과 정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사상과 정감은 반드시 민중에게 속한 것이어야 하며 전 인류에 속한 것이어야 하지 작가 개인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문학은 낭만적이어도 좋고 사실적이어도 좋고 상징적이거나 신비적이어도 좋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이야 말로 인간의 문학, 즉 참된 문학이다.”²⁾

여기서 그는 신문학은 반드시 민중의 인생을 표현해야 함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러한 문학이야 말로 가장 진화한 문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선옌

2) 沈雁冰, 「文學和人的關係及中國古來對文學者身分的誤認」, 『小說月報』 제12권1호, 1921년 1월, 3쪽.

빙은 인류문명과 마찬가지로 문학 역시 진화의 과정을 밟는다고 생각했다. 문학이란 개인의 문학, 제왕 및 문벌귀족의 문학, 민중의 문학의 순서로 진화하기 때문에 중국의 신문학은 마땅히 민중의 인생을 반영한 문학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제창한 ‘인생을 위한 문학’은 특정 창작기법이나 문예사조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민중의 사상과 감성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문학이었다. 선연빙의 ‘인생을 위한 문학’ 문학관은 혼자만의 고독한 외침이 아니라, 문학연구회 지식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었다.³⁾

선연빙은 『월보』에서 ‘민중(民衆)’ 혹은 ‘평민(平民)’을 ‘해침당한 자(被損害者)’, ‘치욕당한 자(被恥辱者)’, ‘억압받은 자(被壓迫者)’ 등과 동의어로 사용했다. 당시 중국사회는 제국주의 서구 열강의 침탈, 군벌 할거, 북경중앙정부의 무능과 부패, 유가질서의 붕괴 등으로 지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있었고, 가장 고통당하는 계층은 바로 평민 대중이었다. 평민 대중의 인생을 위한 문학은 바로 억압받는 자의 고통을 반영한 문학을 의미했고, 그로인해 도시 노동자, 농민, 여성의 고단한 삶은 주요 제재가 되었다. 그러나 당시 중국문단에서 창작되는 작품들은 8-90%가 연애이야기에 치중하고 있었고 그 구조도 천편일률적이었다. 이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연빙은 신문학 작가들에게 사실주의⁴⁾ 창작정신으로 무장하여 ‘민간으로 들어가(到民間去)’ 직접 경험하고 관찰할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해야만 문학을 창작하는 지식인은 하층계층과 단절된 상황을 타파할 수 있었다. ‘인생을 위한 문학’이 구호에만 그치고 실제로 훌륭한 작품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문학을 창작하는 지식인들이 억압받는 계층의 삶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작가 자신이 직접 노동자 혹은 농민의 노동을 경험하고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은 신문학 작가가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이었다.⁵⁾

3) 그 당시 정전두어가 쓴 『문학연구회총서 취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鄭振鐸, 「文學研究會叢書緣起」, 『東方雜誌』 제18권11호, 1921년 6월 10일, 127-128쪽 참조.

4) 원문에서는 ‘자연주의(自然主義)’라고 되어 있으나, 문맥상으로 보아 사실주의의 개념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실주의라고 번역했다. 1920년대 초기 선연빙은 자연주의와 사실주의를 거의 구별 없이 사용했다.

5) 郎損, 「評四五六月的創作」, 『小說月報』 제12권8호, 1921년 8월, 4쪽.

그런데 한 국가의 억압받는 계층의 인생을 반영한 문학은 그 민족의 국민성과 역사, 시대사조가 혼합되어 만들어진 산물이었다.⁶⁾ 따라서 선옌빙이 주장한 ‘인생을 위한 문학’은 각 민족의 특수성을 담아내는 문학이라는 또 다른 함의를 내포했다. 이에 관하여 제12권1호 개혁선언에서 “동인(同人)들이 굳게 믿기를, 일국의 문예는 일국 국민성의 반영이며 국민성을 표현한 문예만이 진실한 가치를 가질 수 있으며, 세계 문학에서 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⁷⁾고 분명히 밝혔다. 선옌빙의 견해로는, 문학은 인생을 종합적으로, 진실하게, 충실히 표현하는 것으로, 사회, 시대, 국민성 등을 반영한 작품만이 비로소 진실한 가치를 가진 작품이 될 수 있었다. 보편성(피억압 민중의 인생) 위에 특수성(사회, 시대, 국민성)을 담지해내는 ‘인생을 위한 문학’은 결국엔 전세계 인류의 감정을 소통하게 하여 억압받는 자들에 대한 동정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이러한 문학관은 중국 신문학을 비평할 때는 물론이고⁸⁾ 외국문학을 수용할 때에도 중요한 비평기준이 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신문학 작가들이 중국사회의 부패와 쥐죽은 듯 고요한 인심(人心)을 지극히 혐오해서 외국문학작품을 빌려와 향의하고 죽어가는 인심을 자극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고 유익한 일이라고 옹호할 수 있었다.⁹⁾

그런데 선옌빙이 신문학의 발전 방향으로 제시한 사실주의 문학은 민중의 고통과 사회악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기 때문에 독자들로 하여금 모골이 송연할 만큼 끔찍한 느낌을 갖게 하고 비관적 전망을 갖게 할 우려가 있었다. 사실주의 문학이 갖는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선옌빙은 민중의 인생을

6) 記者, 「被損害民族的文學·引言」, 『小説月報』 제12권10호, 1921년 10월, 2쪽.

7) 「改革宣言」, 『小説月報』 제12권1호, 1921년 1월, 3쪽.

8) 선옌빙은 죄악에 대한 반항과 해침당한 자(被損害者)에 대한 동정을 표현한 중국 신문학 작가에게 깊은 경의를 표했다. 이런 작품들은 독자로 하여금 동정심과 분노를 일으켜 중국에는 불합리한 사회를 변혁하고자 하는 의지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그는 굳게 믿었다. 郎損, 「春季創作壇漫評」, 『小説月報』 제12권4호, 1921년 4월, 3쪽 참조.

9) 雁冰, 「介紹外國文學作品的目的—兼答郭沫若君」, 『文學旬刊』 제45기, 1922년 8월 1일, 2쪽.

조금의 주관도 없이 사실적으로 묘사하되 작가는 그 속에 건전한 인생관을 담아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중국 작가는 사실주의 창작기법과 인도주의 정신과 밝고 활발한 인생관을 조화시켜야 하는 임무를 떠안게 되었다.¹⁰⁾ 새로운 사상을 선전하는 선봉대의 역할을 작가가 맡음으로써, ‘인생을 위한 문학’은 인생을 충실히 반영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개량하고 지도하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 새로운 사상이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문학가가 선봉대가 되어 문학적 묘사와 비평 수단에 의지하여 귀머거리의 귀를 틔우고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고 주장했다. 톨스토이, 로망롤랑, 버나드 쇼, 하우스프트 만 등이 문학을 수단으로 하여 새로운 사상을 선전하는 선봉대와 같은 역할을 했듯이, 중국의 신문학 작가들도 신사상을 전파하려는 의지에서 출발하여 정확한 인생관을 작품 속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¹¹⁾ 5.4운동 직후 청년 지식인들은 국가권력으로부터도 소외되고 인민대중으로부터도 고립된 채, 쾌락에 탐닉하거나 우울과 감상주의에 빠져 있던 터였다. 미래의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기로에서 방황하는 청년 지식인들을 구제하는 역할을 문학이 담당하기 위해서, 신문학가는 농밀한 감정과 사랑타령이나 하는 귀족문학을 청산하고 피와 눈물의 평민문학을 써서 이들의 분발정신을 고취시키는 임무를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¹²⁾

물론 선연빙의 ‘인생을 위한 문학’ 문학관은 당시의 청년지식인들로부터 비판받기도 했다. 일부 청년들은 문예의 효용은 내적 생활의 충실, 정신의 자유, 영혼의 해방에 있지 실제적으로 사회변혁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간주하는 선연빙의 주장에 반대했다. 하지만 선연빙은 문학은 결코 사람들로 하여금 상아탑 속에서 도취되어 정신상의 승리를 자랑하게 만들고 난세에 실생활과 씨름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을 비천하다고 여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단호히 반격했다.¹³⁾ 같은 맥락에서 그는 제1세대 중국공산당원 윈다이잉(惲代英)이

10) 冰, 「新舊文學平議之評議」, 『小說月報』 제11권1호, 1920년 1월, 3쪽.

11) 佩韋, 「現在文學家的責任是什麼?」, 『東方雜誌』 제17권1호, 1920년 1월, 94-95쪽.

12) 雁冰, 「雜感—讀代英的八股」, 『文學』 제101기, 1923년 12월 17일, 4쪽.

주장한 “현재의 신문학이 국민의 정신을 격발시킬 수 있고 그들로 하여금 민족독립과 민주혁명운동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일반인의 존중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문학이 만일 팔고문(八股文)과 마찬가지로 무용하거나 혹은 더욱 나쁜 영향을 끼친다면 문학적 가치가 얼마만큼 있든지 간에 우리는 팔고문을 반대하듯이 문학을 반대해야 한다.”¹⁴⁾라는 주장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었다.

2) 『소설월보』의 개혁 방침

선연빙의 개혁 조치에 상무인서관 원로 경영진의 개입이나 간여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선연빙이 편집장으로 올 때 그는 상무인서관 경영진측에 편집 전권을 자신에게 위임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선연빙의 개혁 목적은 서양의 신문학과 문예사조를 소개함으로써 중국 신문학이 갖추어야 할 상식을 습득하는데 있었다.¹⁵⁾ 이는 문학연구회의 설립취지와 일맥상통하는데, 문학연구회는 해외문예사조에 관한 공부는 책을 구하는 어려움과 공부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때문에 혼자서 하기에는 버겁기 때문에 여럿이 나누어 맡아 하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창립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그 당시 중국에서 유행한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¹⁶⁾ 물론 그 궁극적 목적은 위선과 부패가 만연한 중국의 오래된 문화를 파기하고 젊고 생명력 있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내용과 형식상에서 『월보』 12권은 전대(前代)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먼저 편집 형식에 있어 새로운 란이 개설되었다. 새로 개설된 주요란은 역총(譯叢), 해외문학개관, 문학가 연구, 해외문단소식, 통신, 마지막

13) 玄, 「雜感」, 『文學』 제90기, 1923년 10월 1일, 4쪽.

14) 雁冰, 「雜感—讀代英의八股」, 앞의 잡지, 4쪽.

15) 「本月刊特別啓事」一, 『小說月報』 제11권12호, 1920년 12월, 1쪽.

16) Marian Galik, *Mao Tun and Modern Chinese Literary Criticism*, Wiesbaden: Franz Steiner Verlag, 1969, 44쪽 참조.

페이지, 삽화 등이었고, 매호마다 고정된 격식을 고집하지 않고 비교적 탄력적으로 안배했다. 13호에 와서는 약간의 변화를 더 주었다. 12호에서는 문학 작품을 ‘창작’과 ‘역총’으로 나누어 중국문학과 외국문학을 확연히 구분지어 안배했음에 반해, 13호에서는 장르별(소설, 시, 희극)로 나누고 중국문학과 외국문학을 구분 없이 함께 수록했다. 12호에서는 작가가 중국인인지 외국인인지가 중요한 기준이었다면, 13호에서는 장르 유형이 작품 안배의 중요한 기준으로 채택되었다. 한편 13호에서는 독자문단, 번역가 문단(번역가들의 창작을 발표하는 난), 고서신평(故書新評), 구미최근출판문학서적표(歐美最近出版文學書籍表), 전후문예신조(戰後文藝新潮) 등의 난이 새롭게 선보였다. 해외 문학사조의 소개와 문학가 연구 등이 특별히 강조된 이유는 진정한 작품 이해를 위해서는 작가 생애와 그 시대의 문예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¹⁷⁾ 외국의 사상사와 문예사에 대한 연구, 외국문학자들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연구를 진작시키는데 주안점을 둔 조치였다.

편집장 선연빙이 번역작품을 선정하는 기준 역시 전대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달랐다. 그의 선정 기준은 ‘인생을 위한 문학’과 동시대성이었다. 청말민국초기 번역문단을 독점했던 린수(林紓)의 번역소설이 영미권과 프랑스 문학 중심이었던데 비해 『월보』는 그동안 주목받지 않았던 러시아와 약소국가의 문학으로 시야를 옮겨갔다. 이들 국가의 문학이 억압받는 자의 삶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또 선연빙은 동시대 작가를 우선적으로 번역할 것을 주장하여, 근현대 작품을 먼저 번역하고 고전작품은 천천히 번역하는 방침을 세웠다.¹⁸⁾ 그 결과 19세기와 20세기 초기의 작품 번역에 집중했다.

그리고 선연빙은 외국어에 능통한 번역가들을 대거 등용했고¹⁹⁾, 문언이 아

17) 佩章, 「現在文學家的責任是什麼?」, 『東方雜誌』 제17권1호, 1920년 1월, 96쪽.

18) 沈雁冰, 「翻譯文學書的討論」, 『小說月報』12권2호, 2-3쪽.

19) 특히 눈의 띄는 점은 5.4시기에야 비로소 출현한 러시아어 번역가의 번역 성과를 충분히 반영한 점이다. 5.4시기 이전에는 러시아어에 정통한 번역가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영역본이나 일역본에 의지하여 러시아 문학을 번역했다. 그런데 5.4시기로 접어들면서 러시아 전수관에서 러시아어를 배운 졸업생을 배출함으로써 취치우바이(瞿秋白), 경지즈(耿濟之)와 같이 러시아어 원전을 직접 번역하는 번역가가 출현할 수 있

닌 백화문으로 의역(意譯)이 아닌 직역(直譯)의 번역방식을 제창했다. 임역소설에서 사용한 원작을 지나치게 변형시키는 자유로운 번역 방식을 강하게 거부하고 원작을 충실하게 번역하는 ‘직역’을 옹호했던 것이다. 그의 ‘직역’은 의역의 반대어가 아니라 원작을 ‘왜곡하는 번역(歪譯)’의 반대어였다.²⁰⁾ 옌푸(嚴復)와 린수 등 청말시기 번역가들이 원문을 생략하거나 혹은 원문에 번역자의 견해를 첨가함으로써 원문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모습으로 변형시켰다고 비판하면서, 원문에 대한 생략이나 증감없이 충실하게 번역하는 ‘직역’의 주장이 5.4시기 번역문단을 주도했다.²¹⁾ 이에 덧붙여, 선옌빙은 설령 축자역이라 하더라도 독자가 읽고 이해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직역이 아닌 ‘죽은 번역(死譯)’이므로 반드시 단어의 사전적 의미보다 맥락적 의미를 고려하여 번역할 것을 주장했다.²²⁾ 따라서 원문의 내용과 면모를 훼손시키지 않고 중국인의 가독성을 고려한 직역 방식을 확립하였다.

3. 1921년~1922년 『소설월보』의 외국문학 번역과 중국적 변용

선옌빙이 편집장으로 있던 1921-1922년 동안 『월보』는 창작보다는 번역을 집중적으로 실었다.²³⁾ 이 기간 번역된 외국문학 총 182편 가운데 러시아 문학이 44편으로 약 1/4을 차지해 1위였고, 그 다음이 스웨덴 21편, 인도 19편으로 2,3위에 올랐으며, 폴란드(9편), 헝가리(9편), 유대민족(7편) 등 약소민족 문학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스웨덴과 인도가 2,3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베르네르 폰 헤이텐스탐과 타고르의 시의 번역이 많았던 때문이다.²⁴⁾

었다. 그로 인해 작품 선택의 기준이나 번역의 질적인 면이 향상되었다.

20) 茅盾, 「直譯, 順譯, 歪譯」, 羅新璋, 『翻譯論集』, 商務印書館, 2009, 424쪽.

21) 傅斯年, 「譯書感言」, 羅新璋, 같은 책, 438-439쪽.

22) 雁冰, 「直譯與死譯」, 『小說月報』 제13권8호, 1922년 8월, 4쪽.

23) 선옌빙의 개역이후 정간될 때까지 『월보』에 번역이 차지한 비율은 58% 정도 되었다. 殷克勤, 「簡論小說月報在中國現代文學史上的地位和作用(之二續)」, 『陽州師院學報』 1994년제4기, 56쪽 참조.

그러므로 한 국가의 여러 작가의 작품이 번역된 쪽은 오히려 폴란드, 헝가리, 유대민족 등 약소민족이었다. 러시아와 약소민족 작가들은 신설된 ‘외국작가 평전’란을 통해 상세히 소개되었다. 중국 혁명을 추동할 인식상의 공감대를 만들어내는데 사회주의 혁명을 이룩한 경험이 녹아있는 러시아 문학과 강권 국가의 압제에 항거하는 외침이 담긴 약소민족의 문학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선연빙의 판단 때문이었다. 본고는 ‘역총’과 ‘외국작가평전’ 및 ‘문학가연구’란을 중심으로 『월보』의 외국문학 수용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아쉽지만 ‘해외문단소식’과 ‘전후문예사조’란에 관한 분석은 지면상의 부족으로 차후로 미루기로 한다.

1) 러시아 문학의 번역

『월보』에 번역된 총 44편의 러시아 문학은 체호프(A. P. Chekhov)의 작품이 6편²⁵⁾, 투르게네프(I. S. Turgenev) 5편, 고리끼(M. Gorky) 5편, 안드레예프(L. N. Andreev) 4편, 솔로구프(F. Sologub) 4편, 크릴로프(I. A. Krylov) 3편, 고골(N. V. Gogol) 2편, 톨스토이(L. N. Tolstoy) 2편, 아르치바세프(M. P. Artsybashev) 2편, 레비토프(Levitoff) 2편이 번역되었고, 그 밖에 블로크(A. Blok), 룩신(B. V. Savinkov)의 필명, 페트로파블로브스키(N. E. Petropavlovsky), 즐라토브라스키(N. N. Zlatovratsky), 알리보프(M. N.

24) 르네르 폰 헤이덴스탐의 시는 13편 번역되었고, 타고르의 시는 18편 번역되었다.
 25) 체호프의 작품이 6편으로 가장 많은데, 사실 체호프의 작품은 월보의 개혁을 눈앞에 둔 1920년에 일찍부터 여러 편이 번역되고 있었다. 1920년 한 해 동안 무려 9편의 작품이 번역되었으니 선연빙이 편집장으로 있던 기간 보다 더 많았다. 체호프의 작품은 대부분 경지즈(耿濟之) 형제(동생 式之, 勉之)에 의해 번역되었다. 특이한 점은 체호프의 작품은 상당수가 번역되었지만, 체호프의 생애와 작품세계에 관한 분석은 아주 간략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다른 러시아의 문호들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는 문학가연구란 혹은 특별란을 통해 상당히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반면에 체호프에 대해서는 호외본 러시아문학연구에서 일본 노보리 쇼무(昇曙夢)의 글을 천왕따오(陣望道)가 번역한 「근대 러시아 문학의 主潮」에서 간략하게 언급되는데 그치고 있다. 『小說月報』12권 號外, 1921년, 18쪽 참조.

Alibov) 도스토예프스키(F. M. Dostoevskii), 이반부닌(Ivan Bunin), 코롤렌코(V. Korolenko), 시체드린(M. E. Saltykov-Shchedrin), 우스펜스키(Uspensky), 레스코프(N. S. Lesskof), 쿠프린(A. I. Kuprin), 푸시킨(A. Pushkin), 미첼(M. Michels), 산니코프(G. Sannikoff), 아베첸코(A. Averchenko) 등의 작품이 각각 1편씩 번역되었다. 여기서 알 수 있듯, 19세기 후반기와 20세기 초반기에 생존했던 작가에 집중했으며, 18세기 작가의 작품은 거의 없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러시아 문학의 중요성 때문에 선연빙은 1921년 9월, 호외(號外) 형식으로 ‘러시아문학연구(俄國文學研究)’를 발간하여 러시아 문학과 작가를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호외는 연구논문, 역총, 부록, 삽화 4부분으로 구성되었고, 연구논문은 20편(장르별 문학 개관, 작가 전기, 문예사조 등), 번역된 작품은 29편(소설 25편, 희극 1편, 시 3편)이었고, 부록 4편, 삽화 5장 등이 실렸다. 러시아 문학 특집호인 만큼 분량이 무려 500쪽에 달했는데, 『월보』가 평균 130쪽 내외였다는 것에 비교해봤을 때 거의 4배에 달하는 분량이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급진적 지식인 내부에서는 러시아 혁명을 일으킨 원인과 원동력은 무엇이었는지 탐색하는 분위기가 만연했다. 당시 베이징대학 역사학 교수이자 사회주의자 리다자오(李大釗)는 「러시아문학과 혁명」에서 “러시아 혁명은 러시아 문학에 대한 반항이었다”고 밝혔듯이 당시 중국 지식인들은 러시아 문학이 사회주의 혁명을 견인했다고 믿었다.²⁶⁾ 리다자오는 러시아 문학은 농후한 사회적 색채와 인도주의가 2대 특징인 까닭에 그로 말미암아 혁명조류의 기세를 고조, 배태시킬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혁명을 일으킨 원동력은 바로 러시아 문학이었다는 관점은 선연빙도 적극적 지지했다. 1919년 『신청년(新青年)』에 연재된 천두슈(陳獨秀)와 리다자오의 글을 읽으면서 선연빙은 점차 러시아 문학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²⁷⁾ 러시아 혁명과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연구에 심취하던 시기

26)李大釗, 「俄羅斯文學與革命」. 이 글은 1918년경 썼다고 추정되고 있다. 李星華; 賈芝, 「<俄羅斯文學與革命>附記」, 『人民文學』第5期, 1979년 5월 20일 참조.

27) 특히 리다자오가 쓴 「서민의 승리(庶民的勝利)」는 그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고 한다.

선옌빙은 「톨스토이와 현재의 러시아」라는 글을 발표했다.²⁸⁾ 이 글은 19세기 말의 세계문학, 러시아 혁명의 동력, 또 그것이 앞으로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학이 사회사조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려는 의도에서 구상한 글이었다. 선옌빙은 이 글에서 톨스토이를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작가라 격찬했다. 한편, 선옌빙의 동생 선저민(沈澤民), 러시아 문학의 번역가이자 제1세대 공산당원이었던 그의 글에서도 러시아 문학이 사회주의 혁명에 미친 영향력은 일관되게 강조되었다.²⁹⁾ 안드레예프의 사상을 소개한 글에서 선저민은 러시아에서만 문학이 생활의 일부가 되고, 인민의 생각과 인간의 정신적 물질적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고 문학을 중시한 나라는 없었고,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문학은 러시아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고 기술했다.³⁰⁾ 사실 이는 선저민이 참조한 영역본 『7인의 사형수』에 토마스 셀처(Thomas Seltzer)가 쓴 서문에서 가져온 것이었다.³¹⁾ 여기서 우리는 문학에 대한 서구의 목적론적 설명이 1920년대 초기 중국의 급진적 지식인 번역가에게 적극 수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청말시기 량치차오(梁啟超)가 문학에 의한 계몽을 주장한 이후 5.4시기로 접어들면서 문학은 혁명을 위한 수단으로 재인식되었고, 그 과정에서 문학에 대한 서구의 목적론적 설명은 중국지식인들의 태도를 확고히 하는데 이용되었다.

선옌빙이 러시아 문학의 특징을 파악하고 번역작품을 선별하는데 크게 의지한 영어 텍스트는 『러시아 단편소설선(Best Russian Short Stories)』에 토

李廣德,

『一代文豪·茅盾的一生』, <http://www.shuku.net/novels/zhuanji/ydwhmtdys/mtdys09.html>.

28) 雁冰, 「托爾斯泰與今日之俄羅斯」, 『學生雜誌』 제6권4-6호, 1919년 4-6월. ; 北京大學比較文學研究所 編, 『中國比較文學研究資料, 1919-1949』, 北京大學出版社, 1989.

29) 취치우바이는 1920년 3월에 쓴 글에서 당시의 중국 지식인들이 러시아 혁명의 원동력을 러시아 문학을 통해 찾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밝히고 있다. 瞿秋白, 「俄羅斯名家短篇小說集 序」, 『瞿秋白文集』文學編 第2卷, 人民文學出版社, 1986, 248쪽 참조.

30) 沈澤民, 「恩特列夫的文學思想概論」, 『學生雜誌』 제7권5호, 1920년, 2쪽.

31) Leonid Andreyev, trans., Thomas Seltzer, *The Seven That Were Hanged*, New York: Boni and Liveright, The Modern Library, 1918, 「Introduction」 vii 참조.

마스 셀처(Thomas Seltzer)가 단 ‘서문(Introduction)’이었다.³²⁾ 이 책은 1917년 미국에서 ‘세계 명작 근대 문고(The Modern Library of the World’s Best Books)’ 총서로 출간된 것으로, 당시 상무인서관 편역소의 함분루(涵芬樓) 도서관에 이 총서가 구비되어 있었던 덕분에 선연빙이 쉽게 접할 수 있었다.³³⁾ 토마스 셀처의 서문은 「러시아 근대문학 잡담(俄國近代文學雜譚)」이라는 제목으로 선연빙이 번역해서 『월보』에 실렸다.³⁴⁾ 하지만 선연빙은 자신의 글에 대한 원천 텍스트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러시아 근대문학의 특징은 평민의 호소와 인도주의의 고취이며, 하층민의 삶을 묘사하면서도 살기등등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독자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하고 통치계층으로 하여금 참회하도록 한다는 토마스 셀처의 견해는 그대로 번역되었다.³⁵⁾ 이는 바로 선연빙이 1921년 제창한 인생을 위한 문학의 내용과 일치한다. 인생을 위한 문학을 제창하기 직전, 1919-1920년간 그는 토마스 셀처의 서문이 달린 『러시아 단편소설선(Best Russian Short Stories)』에 수록된 러시아 문학을 상당수 번역했었다. 인생을 위한 문학관은 바로 러시아 문학에 관한 서양학자의 견해를 접하면서 확립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³⁶⁾ 사회문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 그리고 인도주의적 경향이 러시아 문학의 특징이라는 선연빙의 주장은 문학연구회 멤버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일례로 정전두어 역시 러시아 문학은 러시아 문학의 특징은 조탁이나 격률에 얽매이지 않고 감정을 진솔하게 반영하고 사회상황을 진실하게 반영, 인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개성을 표현한 인간의 문학, 평민의 문학이

32) ed., Thomas Seltzer, *Best Russian Short Stories*, New York: Boni and Liveright, inc, 1917, vii-xvi 참조.

33) 茅盾, 『我走過的道路』(上), 人民文學出版社, 1997, 145-146쪽.

34) 참고로 그의 번역은 원문에 대한 상당한 생략이 가해졌다. 雁冰, 「俄國近代文學雜譚 上·下」, 『小說月報』 제11권1-2호, 1920년 1-2월.

35) 반면, 선연빙은 토마스 셀처의 원문에 있는 민주적 정신(democratic spirit), 고통을 통한 정화라는 부분은 생략했고, 인도주의 이면에 녹아있는 기독교 정신도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다.

36) 芦田肇, 「初期茅盾における原理的文學觀獲得の契機—そのロシア文學受容—[茅盾研究 노트(一)]」, 『東洋文化研究所紀要』101冊, 1986년 11월, 227-269쪽 참조.

라고 주장했다.³⁷⁾ 제1세대 중국공산당원 취치우바이(瞿秋白)와 러시아어 전문수관(俄文專修館)에서 함께 공부했던 친구 경지즈(耿濟之) 역시 선잉(沈穎)이 번역한 뚜르게네프의 『전날 밤(前夜)』(商務印書館, 1921년)에 쓴 서문³⁸⁾에서, 자신이 러시아 문학의 번역에 착수하게 된 계기가 바로 러시아 문학이 인간의 문학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톨스토이³⁹⁾, 뚜르게네프, 도스토예프스키, 체호프 등이 억압당하는 계층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작품 속에서 표현해내는 인도주의 정신에 중국 급진적 지식인들은 탄복했다. 그리고 철저히 현실, 그리고 살아있는 인간의 고난에 기반한 사실주의 기법을 취한 러시아 작가의 창작정신을 배우고자 했다. 러시아 문학에 드러난 수난당하는 계층에 대한 연민과 동정에 근거하여 중국지식인들은 러시아 문학은 인도주의의 작품이라고 규정하였고, 그 결과 러시아 작가는 모두 인도주의 작가로 오인되고 말았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러시아 모더니즘 경향을 갖는 상징주의, 염세주의 작가 안드레예프였다.⁴⁰⁾ 선옌빙은 안드레예프의 사망기사를 보도한 글에서 그의 작품은 신비적이고 퇴폐적인 경향을 띠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농후한 인도주의 색채를 가지고 있는 작가라고 단언했다.⁴¹⁾ 왜냐하면 『7인의 사형수』는 사형의 불합리성을 폭로하고 있으며, 『붉은 웃음』은 반전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⁴²⁾ 저우쭈어런

37) 鄭振鐸, 「俄羅斯名家短篇小說集 序」, 嚴家炎 編, 『二十世紀中國小說理論資料』(제2권)1917-1927, 北京大學出版社, 1997, 93-94쪽 참조.

38) 耿濟之, 「屠格涅夫〈前夜〉序」, 嚴家炎 編, 같은 책, 342-345쪽 참조.

39) 謝六逸, 「西洋小說發達史(續)」, 『小說月報』 제13권7호, 1922년 7월, 10쪽. 이 글에서 톨스토이 작품은 인도주의 사상으로 충만하며 그로 인해 세계의 민중들은 깊은 감화를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40) 이러한 안드레예프의 중국적 수용은 러시아 마르크스주의 비평가 루나차르스키가 안드레예프에 대해 고통당하는 러시아 대중의 곤경에 무관심한 작가, 죽음의 사자라고 비난한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41) 冰, 「安得列夫死耗」, 『小說月報』 제11권1호, 1920년 1월, 4쪽.

42) 안드레예프 작품에 관한 선옌빙의 비평은 오늘날의 비평과 상당히 대조적이다. 일반적으로 『7인의 사형수』는 사형을 앞두고 있는 혁명가 및 농민의 이야기로 죽음을 기다리는 인간의 심리상태에 대한 고찰이며, 『붉은 웃음』은 전쟁에 노출된 극도로 광적인 인간의 심리상태를 표현한 작품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周作人) 역시 안드레예프는 러시아 문학의 보편적 특징인 농후한 인도주의 색채를 가지고 있는 작가라고 소개했다.⁴³⁾

러시아 문학은 사실주의 창작 방식에 인도주의 시선이라는 요소가 훌륭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여겼고,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여 푸르케네프의 『사냥꾼의 수기』를 각별히 중요하게 다루었다. 사실 잡지 매체라는 특성 때문에 그 당시 『월보』에 실린 작품은 대부분 짧은 편폭으로 된 단편소설, 단막극, 시 위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1921년부터 1924년까지 무려 4년 동안 연재될 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본래 이 작품은 에필로그를 빼고 총 24회로 되어 있는데, 1921-22년간 연재된 부분은 1-11회까지 전반부에 해당한다. 『사냥꾼의 수기』를 번역한 경지즈는 번역가의 서문에서 이 작품은 모두 24개의 단편이 묶여져 있고 각 단편은 모두 독자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월보에 한편씩 연재하기에 적당하다고 밝혔다.⁴⁴⁾ 이어서 그는 설명하길, 이 작품은 러시아에서 최초로 농민 생활을 묘사한 평민문학이다. 일상적인 사견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사실주의 수법으로 러시아 농민이 가지고 있는 이상과 정신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독자들은 이 작품을 통해 러시아 국민성과 농민사회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푸르케네프는 사실과 이상 사이에서 균형을 잘 유지한 작가라고 중국 번역가는 칭송했다.⁴⁵⁾ 『월보』는 『사냥꾼의 수기』를 번역 연재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이 작품에 대한 연구논문과 작가 푸르케네프 평전⁴⁶⁾도 실었다. 경지즈가 쓴 연구논문 「사냥꾼의 일기 연구」를 보면, 농노제도 때문에 러시아 농민은 억압당한 채 암흑 속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연미를 감상할 줄 아는 심미안과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면서 순박하게 살아가는 참된 존재이며, 이 작품은 3가지 즉, 농민이 가진 긍정적 성격, 농민생활이 지닌 장점, 지주와 농민간의 불평등한

43) 俄國 L. Andrejev 著, 周作人 譯, 「齒痛」, 『新青年』 제7권1호, 1919년 12월, 69쪽 참조.

44) 耿濟之 譯, 「獵人日記」, 『小說月報』 제12권3호, 1921년 3월, 1쪽.

45) 耿濟之, 「獵人日記研究」, 『小說月報』 제13권3호, 1922년 3월, 16쪽.

46) 「푸르케네프 평전(屠格涅夫傳略)」(『小說月報』 제13권3호, 1922년 3월, 1-7쪽)은 크로포트킨(Kropotkin)의 『러시아 문학의 이상과 실제(Ideals and Realities in Russia Literature)』, 99-114쪽에서 시에리우이(謝六逸)가 발췌 번역한 것이었다.

관계에 관해 집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자연을 사랑하고 음악을 좋아하며 자연에 적응하는 순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농민을 사실적으로 묘사해낸 점에서 훌륭한 가치가 있다고 기술했다. 이와 동시에 이 작품이 갖는 한계로 농노제도에 반항하는 강도가 약함을 지적했다. 푸르케네프는 불합리한 농노제도에 분노를 느끼고 있었지만 그의 분노는 실상 작품 속에 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가 묘사한 인생도 농민에게만 집중하지 않고 지주까지 포괄하고 있었다. 작품의 의도 역시 농촌생활의 묘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순수한 심리의 묘사에 있었다. 푸르케네프는 사상적인 편향성이 없는 사실주의 예술가였기 때문에, 그가 악을 묘사한 이유는 그 악과 투쟁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현실에서 발견한 결과였다. 작가의 정치참여의 소극성으로 인해 이 작품이 농노제도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인물과 자연에 대한 사실적 묘사로 가득한 이 작품은 백번 읽어도 싫증나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격찬했다.⁴⁷⁾

푸르케네프와 마찬가지로 문학가연구관에서 상세하게 다뤄지고 있는 또 다른 인도주의 작가는 도스도예프스키였다. 그는 모욕과 학대받은 자들의 순결한 영혼을 찬미한 작가로 소개되었다.⁴⁸⁾ 제13권1기의 문학가연구관은 도스도예프스키에 관한 4편의 글, 「도스도예프스키의 사상」, 「도스도예프스키 평전」, 「도스도예프스키의 지위」, 「도스도예프스키에 관한 영문서적」으로 채워졌다. 「도스도예프스키의 사상」⁴⁹⁾은 민국시기에 나온 도스도예프스키에 관한 평론 가운데 가장 긴 편목을 자랑하는데, 머리(J. M. Murry)의 『표도르 도스도예프스키, 비평 연구(Fyodor Dostoevsky, A Critical Study)』, 크로포트킨의 『러시아 문학의 이상과 실재(Ideals and Realities in Russia Literature)』, 브란데스(G. Brandes)의 『러시아의 인상(Impressions of Russia)』, 샤크노브스키(Shakhnovski)의 『러시아 문학사(An Literature History of Russian Literature)』, 솔로비프(E. Soloviev)의 『도스도예프스키, 그의 삶과 문학 활

47) 耿濟之, 「獵人日記研究」, 『小說月報』 제13권3호, 1922년 3월, 25쪽.

48) 謝六逸, 「西洋小說發達史(續)」, 『小說月報』 제13권7호, 1922년 7월, 9쪽.

49) 沈雁冰, 「陀斯妥以夫斯基的思想」, 『小說月報』 제13권1호, 1922년 1월, 2-13쪽.

동: 전기적 스케치(Dostoevsky, His Life and Literary Activity: A Biographical Sketch)』 등을 참조해서 선옌빙이 쓴 글이었다. 이 글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사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소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선옌빙의 단언으로 시작하고 있으며, 소설을 중심으로 작가의 전/후기 사상적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전기 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는 『분신』, 『지하로부터의 수기』, 『편지』 등을 통해 설명했고, 후기 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슬라브주의, 그리고 러시아 민족적 특징을 지니는 새로운 신의 출현을 기대하는 점에 있어서는 『악령』과 『카라마조프의 형제』을 통해 설명해내었다. 선옌빙은 도스토예프스키 사상의 최대 특징은 성선론이라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인성의 선한 본성은 불멸하기 때문에 해침당한 자(被損害者) 혹은 비천하고 흉포한 생활에 떨어진 인간일지라도 영혼에 존재하는 고귀한 성질—선옌빙은 이를 ‘신의 불꽃(神的火花)’이라 표현하고 있다—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들의 죄악은 해침을 당하고 압제를 당한 결과일 뿐이며, 그들이 만일 자유롭고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선한 본성은 자연스럽게 발로할 것이라 여겼다. 기독교 정신으로 기반으로 해서 도스토예프스키는 모욕과 해침을 당한 자(被侮辱者與被損害者)들은 비록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영혼은 결코 타락하지 않았음을 작품 속에서 묘사해낼 수 있었다. 선옌빙은 이 글의 맺음말에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사상이 중국 청년들에게 유의미하게 다가오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미래에 대한 낙관,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는 자세, 무산계급에 대한 변호와 동정은 현재의 소침하고 움츠러든 중국 청년들, 안락에 도취해 있는 중국 청년들의 병을 고치는 처방전이 될 수 있다. 중국 청년들이 최근 몇 년간 목도 해온 암흑, 받아들인 고통, 바친 희생 등은 도스토예프스키와 함께 시베리아 강제수용소에서 유형생활을 했던 러시아 청년들이 당했던 것에 비교한다면 천분의 일에도 미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사회의 수많은 청년들은 절망의 목소리를 내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향락으로 자신의 신경을 마취시켜 자고 있는 척 하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지경이었다. 선옌빙은 도스토

에프스키를 생명을 사랑하고 미래를 확신하는 중국 청년으로 거듭나게 만드는데 유용한 지도자로 독해했다. 물론 그의 작품에 대한 예술적 평가도 빼놓지 않았는데, 「러시아문학사에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지위」라는 또 다른 글에서 선옌빙은 도스토예프스키가 러시아 문학의 신기원을 열었던 이유를 3가지, 창작 풍격, 해침과 모욕을 당하는 자들에 대한 깊은 동정, 병적 심리에 대한 묘사로 요약하였다. 특히 현실의 추악상에 대한 사실적 묘사와 이상적인 인격을 작품 속에 조화롭게 담아내는 창작풍격을 높이 칭송했다. 『월보』에 실린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으로는 「정직한 도둑(賊)」(陳大悲⁵⁰⁾ 번역이 있다.⁵¹⁾

2) 약소민족 문학의 번역

중국 급진적 지식인들이 억압받는 자의 고통에 쏟은 관심은 특정 국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지구적 차원이었다. 제국주의 열강의 지배 하에서 차별당하는 약소민족의 고통과 짜르 전제정권 하에서 몇 세기 동안 수난당한 러시아 민중의 그것을 동일시했다. 또 제국주의 열강의 수탈과 억압에 저항한다는 점에서 약소민족은 중국의 처지와 유사하다고 생각한 중국 지식인들은 강한 동질감을 느꼈다. 억압당하는 약소민족의 고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은 5.4 운동으로 고조된 민족주의 정서와 결합했다. 일찍이 마르크스 문예 비평가 저우양(周揚)이 말했던 것처럼, 5.4 신문화 운동에서 제기한 ‘인간의 자각(人的自覺)’은 개인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중국인민의 민족적 자각에 대한 각성도 포함한 것이었다.⁵²⁾ 민족국가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두었던 중국 지식인들은

50) 천다베이(陳大悲)는 중국현대희극운동의 선구자로 상당수의 외국 희극, 소설 작품을 번역한 바 있다. 1921년 선옌빙 외 11인과 함께 상하이에서 민중희극사(民衆戲劇社)를 조직하여 함께 활동했다.

51) 俄國杜思退益夫斯基 著, 陳大悲 譯, 「賊」, 『小說月報』 제12권 號外, 1921년 9월, 110-125쪽.

52) 周揚, 「對舊形式利用在文學上的一個看法」, 『中國文化』 創刊號, 1940년 2월 15일. 『周揚

중국보다 한발 앞서 민족 독립을 쟁취하고자 분투했던 유럽 약소민족 국가에서 일어난 문학부흥운동에 주목했다. 그리고 민족어와 민족문학이 어떻게 독립운동과 근대 국가를 창조하는데 기여했는지에 관해 중국지식인들은 설명하려 했다.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조하려는 열망의 결과로 민족문학 창작 붐이 일었고, 이러한 문단의 성취는 민족정체성을 구체화하는 데는 물론 전지구인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알려 독립운동에 동조적 시선을 이끌어내는데 이바지했다고 여겨졌다. 또 식민 열강의 문화적 굴레에서 벗어나 선조의 문화적 전통을 새롭게 발굴함으로써 민족문학을 확립했던 약소민족의 사례는 중국 지식인들을 매료시켰다. 당시 서양문화의 수입과 동시에 전통문화의 새로운 복원이라는 문제에 직면한 중국지식인들은 그들의 경험을 소중하게 받아들였다. 그들이 걸어온 길을 따른다면 중국도 세계문학의 대열에 오를 수 있는 우수한 민족문학을 창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고, 그 단계에 진입할 때쯤이면 약소민족과 전지구적 차원의 연대를 도모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문학은 인간의 감성을 잇는 매개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학을 통한 연대의 가능성을 믿었던 것이다. 선옌빙이 생각한 문학의 사명은 당대의 전 인류의 생활, 정감, 고통, 기대를 표현해내고 전 인류를 대신하여 불가지한 운명에 항거하고 호소하는 것이었다. 문학의 사명은 전 세계 국가에 공통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민족색채를 띤 민족문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역사적 배경과 사회조건, 언어적 차이 때문이었다. 일례로 아일랜드, 유태인의 신문학 운동은 강한 민족적 특색을 갖고 있지만, 전세계 인류에게 공정과 동정을 호소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선옌빙은 설명했다.⁵³⁾ 『월보』는 약소민족의 문학부흥운동을 소개함에 있어 독립에 대한 열망과 문예부흥의 국면을 연계하여 설명하되, 그 민족이 처한 역사문화적 특수성을 배경으로 하여 민족문학의 특징을 설명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선옌빙은 편집장으로 있는 2년 동안 『월보』에 총 49편의 작품을 번역하여

文集』1권, 人民文學出版社, 1984, 298쪽.

53) 郎損, 「新文學研究者의 責任與努力」, 『小説月報』 제12권2호, 1921년 2월, 2쪽.

실었다. 이는 『월보』의 번역 가운데 약 26%를 차지하는 수치이며, 동생 선저민이 번역한 27편을 더한다면 선씨 형제가 번역한 분량은 무려 41%를 차지할 정도였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선연빙이 번역한 작품은 대부분은 약소민족의 문학이라는 사실이다. 그는 헝가리, 스웨덴, 신유태, 보헤미아, 크로아티아,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조지아, 폴란드, 체코, 네덜란드, 튀리, 포르투갈 등의 문학 번역에 열중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월보』 제12권10호를 “해침을 당한 민족의 문학호(被損害民族的文學號)” 특집으로 발행했다. 특집호 기획 이유에 대해 선연빙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해침을 당한 민족이 정의를 추구하고 공정을 추구하는 외침은 진정한 정의이자 진정한 공정이다. 압착기에서 짜낸 인성(人性)이야 말로 진정으로 고귀한 인성이며 강자의 색채를 띠지 않는 인성이다. 그들 중에서 해침을 당해 추락하는 영혼은 우리를 감동시킨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불합리한 전통사상과 제도의 희생자인 것에 대해 슬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 해침을 당했지만 향상하려는 영혼들은 우리를 더욱 감동시킨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래와 자갈 같은 인성 속에 순금이 내재해있음을 더욱 확신할 수 있으며, 미래의 암흑 뒤에는 바로 광명이 있다고 더욱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⁵⁴⁾ 여기서 알 수 있듯, 중국처럼 강권국가에 해침을 당한 민족이 정의와 공정을 추구하는 목소리를 소개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영혼을 격려하고 제국주의 열강에 대한 투쟁의지를 진작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세계문단에서 우뚝 선 약소민족 작가의 사례를 보도함으로써 중국작가들을 자극하고 분발시키는데도 목적이 있었다. 특집호 맨 앞에 배치된 우크라이나 민가는 특집호의 발간 의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민가는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단한 노동을 감내해야 하는 농민의 슬픔과 불평을 노래한 것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이 언제쯤

54) “凡被損害的民族的求正義求公道的呼聲是真的正義真的公道。在榨床裏榨過留下來的人性方是真正可寶貴的人性，不帶強者色彩的人性。他們中被損害而向下的靈魂感動我們，因為我們自己亦悲傷我們同是不合理的傳統思想與制度的犧牲者；他們中被損害而仍舊向上的靈魂更感動我們，因為由此我們更確信人性的砂礫裏有精金，更確信前途的黑暗背後就是光明！”記者，「被損害民族的文學·引言」，『小說月報』第12卷10號，1921年10月，2쪽.

이면 소강(小康) 시절을 맞이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한탄이 서려있다. 첫 페이지에 가난의 고통에서 터져 나온 우크라이나 농민의 외침을 배치함으로써 특집호가 내건 해침당한 약소민족의 호소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었다. 특집호는 폴란드, 체코, 세르비아, 핀란드, 신유대, 우크라이나, 5개의 신흥약소국의 문학 개관을 다룬 글 8편, 소설 11편, 시 10여 편을 번역 수록하였다. 번역가 방면에서 눈에 띄는 점은 선연빙 형제와 루쉰 형제가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사실 루쉰 형제는 일찍이 1906년에서 1909년까지 도쿄에 유학하던 시절부터 동유럽의 약소민족문학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 왔다. 그 결과물이 바로 1909년 출판된 『역외소설집(域外小說集)』이었다.⁵⁵⁾

『월보』에 가장 많이 번역된 약소국가의 문학은 폴란드였다. 슬라브족에 속하는 폴란드는 체코,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우크라이나, 불가리아와 마찬가지로 18세기 말 이후로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의 지배에 들어가 20세기 초까지 약 100여 년 동안 심한 민족적 차별을 받아왔다. 열강의 침략에 시달리면서도 폴란드는 고유한 언어문자를 보존했으며, 민족어를 바탕으로 문학부흥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국가독립에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폴란드 문학은 이성과 사상의 요소 보다 정감의 요소가 더욱 강한데⁵⁶⁾ 그 이유는 자유를 추구해도 얻지 못한 결과 심하게 위축되고 감상적이 되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⁵⁷⁾ 저우쭈어런(周作人)이 번역한 「근대 폴란드 문학개관」은 홀리윈스키(Jan de Holewinski)의 『폴란드 문학사략(An Outline of the History of Polish Literature)』⁵⁸⁾ 제5장 ‘1863년 혁명에서 현재의 폴란드 문학’을 번역한 것이었다. 번역가로는 저우쭈어런(周作人)과 그의 동생 저우지엔런(周建人), 그리고 경스즈, 왕지엔산(王劍三), 후중즈(胡中持), 선연빙, 리카이시엔(李開先) 등이 참가했다. 폴란드 작가 가운데 시엔키에비츠(H. Sienkiewicz)는 폴란드 문

55) 魯迅, 「我怎麼做起小說來」, 『魯迅全集』第4卷, 人民文學出版社, 1981, 108쪽.; 周作人, 「關於魯迅之二」(1937), 劉緒源, 『苦雨齋主—名人筆下的周作人, 周作人筆下的名人』, 東方出版中心, 1998, 220쪽 참조.

56) 日本 千葉龜雄 著, 海鏡 譯, 「波蘭文學的特性」, 『小說月報』 제13권7호, 1922년 7월, 5쪽.

57) 「被損害民族的文學背景的縮圖」, 『小說月報』 제12권10호, 1921년 10월, 3-4쪽.

58) London: Pub. for the Polish information committee by G. Allen & Unwin ltd, 1916.

자로 폴란드 민족의 사상과 생활을 표현함으로써 독립을 되찾는데 기여했다는 이유로 가장 칭송받았다. 1905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그는 사실주의와 낭만주의를 결합해서 인류의 생활과 호소를 이상적으로 표현해낸 작가였으며, 그의 작품에는 인류에 대한 사랑이 깊이 배여 있다고 선옌빙은 소개했다.⁵⁹⁾ 그의 소개는 ‘인생을 위한 문학’이라는 문학관에 철저히 근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당시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시옌키에비츠의 작품은 1921년 『신청년』에 번역된 「축복이 있길 바라요(願你有福了)」⁶⁰⁾였고, 『월보』에는 「두개의 초원(二草原)」이 번역되었다. 이 두 작품 모두 저우쥬어런(周作人)이 번역했고, 그는 에스페란토어로 된 『폴란드 문학선』을 번역저본으로 삼았다. 그 밖에 19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레이몬트(W. Reymont)의 「심판(審判)」(胡中持 역), 고물리키(Gomulicki)의 「농부」(王劍三 역)와 「제비와 나비(燕子與蝴蝶)」(周作人 역), 프루스(B. Prus)의 「그림자(影)」(周作人 역)와 「이집트의 전설(古埃及的傳說)」(耿式之 역), 시만스키(A. Szymanski)의 「유대인(猶太人)」(周建人 역), 여류작가 코노프니츠키카(M. Konopnicka)의 「나의 고모(我的姑母)」와 「지금의 왕(今王)」, 제이싱거(H. Zeisinger)의 「숲속에서의 성탄저녁(樹林中的聖誕夜)」, 세로웁스끼(W. Sieroszewski)의 「가을(秋天)」(李開先 역)이 실렸다. 이들 작품은 대부분 사회 불평등으로 고통 받는 약자를 다루고 있는데, 일례로 「지금의 왕」에서는 왕과 농민들이 전쟁에 함께 참전했으나, 농민들은 모두 죽어서 구덩이에 묻힌 반면 왕은 조금도 다치지 않고 무사 귀환했다는 이야기로, 고귀한 신분의 왕과 하층 농민의 운명을 대조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불평등한 사회구조로 인한 농민의 곤경을 조명하였다.

유대인 역시 폴란드인처럼 오랜 역사를 가진 민족으로, 주권을 상실한 채 강권국가에 능욕을 당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학술사

59) 沈雁冰, 「波蘭近代文學泰斗顯克微支」, 『小說月報』 제12권2호, 1쪽.

60) 周作人 번역, 『신청년』 제8권6호, 1921.4. 에스페란토 Antologia Internacia(tr. A. Grabowski, 1904)를 번역의 저본으로 사용했다. 이 작품은 민국시기 3종의 번역이 출현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는데, 『晨報副刊』(제11권9기, 1923)에 실린 「須是賜福的」(星衫 譯)과, 『譯文』(제2권4기, 1936)에 실린 「受祝福的」(孫用 譯)이 있다.

에서 빛나는 광채를 발휘했다고 설명했다. 마치 폴란드인들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새로운 학설과 이상을 주장함으로써 폴란드 민족의 존재감을 드러낸 것처럼 말이다.⁶¹⁾ 선연빙이 쓴 「신유태 문학 개관(新猶太文學概觀)」은 바로 1882년 이후에서 20세기 초기까지 이디시(Yiddish) 구어로 창작한 신유태문학 운동을 조명한 글이었다. 이 운동은 19세기 후반 즉 1882년 이후에 일어났으며, 근대 유대 작가들이 어려운 문언 히브리어가 아닌 평이한 민중의 구어 이디시어로 창작함으로써 귀족 혹은 지식인들을 위한 문학에서 탈피하여 일반 민중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게 되었다. 신유태 작가들이 이디시어로 창작한 목적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박해 받으며 살아가는 동포들의 지혜를 개발하고 그들의 번뇌를 위안하기 위해서였다. 선연빙은 이 글에서 신유태문학 운동을 진척시킨 일군의 작가들을 시대별로 소개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브라모비치(Abramovitch)⁶²⁾와 핀스키(D. Pinski)에 대한 격찬이 두드러졌다. 아브라모비치는 러시아 땅에서 유대 유민으로 살아가는 「피시케(Fishke the Lame)」 이야기를 통해 순결성과 자제심을 천부적으로 타고난 유대인의 아름다운 기질을 묘사했다. 신유태 작가 가운데 가장 뛰어난 핀스키는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관찰로 이름난 소설가이자 극작가로서, 『유혹(誘惑)』이라는 단편소설집을 통해 인류영혼의 나약함을 동정적으로 그려냈다는 점에서 칭송받았다. 그는 현대인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현대 문명을 전체적으로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그의 작품은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고향에서 살아가는 유대인의 생활을 재제로 하고 있지만 실은 인류전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선연빙은 설명했다. 『월보』에 실린 핀스키 평전은 일본 치바 카메오(千葉龜雄)의 글을 창징(厂晶, 李漢俊의 필명)이 번역한 것으로 모두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편소설집 『유혹』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는 빈민계급에 대한 특별한 편향과 동정을 보인 작가, 심리묘사에 뛰어난 사실주의 작가라고 핀스키를 칭송하고 있다. 『유혹』에는

61) 沈雁冰, 「波蘭近代文學泰斗顯克微支」, 『小說月報』 제12권2호, 1쪽.

62) 멜텔레 모체르 스포림(Mendele Mocher Sforim; 1836-1917)의 필명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적개심, 유대민족이 당한 종족학대에 대한 분노, 사회의 불평등함에 대한 통렬한 저주, 억압받는 자의 반항과 그들에 대한 연민 등이 집증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핀스키 작품을 관통하는 기본정신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심판하지 않음(不裁判)’에 있다. 수많은 약점을 가진 인간이 감히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없다는 정신에서 출발하여 핀스키는 인류의 약점과 구제할 수 없는 영혼에 대한 통곡을 담아내었다. 이 글은 유대작가들은 영적 결합과 영적 이해를 추구함으로써 세계주의와 인도주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총괄하면서 끝맺고 있다.⁶³⁾ 핀스키의 작품은 총 3편, 『유혹』에 수록된 8편의 소설 중 「라비 아키바(Rabbi Akiba)의 유혹(拉比阿契巴의誘惑)」, 사실주의 희극 「메이니(美尼)」와 「폴란드-1919년(波蘭-1919年)」(이 3작품은 모두 선연빙이 번역)이 번역되었다.⁶⁴⁾ 그 밖에 『월보』에서 다룬 유대인 작품으로는 「살라크와 폴라니(淑拉克和波拉尼)(S. Vendroff 저, 沈澤民 역)」, 단막극 「겨울(冬)(Sholom Ash 저, 沈雁冰 역)」, 「금식절(禁食節)(Leon Perez 저, 沈雁冰 역)」,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온 사람(貝諾思亥爾思來的人)(S. J. Rabinovich⁶⁵⁾ 저, 沈雁冰 역) 등이 있다.

63) 日本 千葉龜雄 著, 厂晶 譯, 「猶太文學與賓斯奇」, 『小説月報』 제12권7호, 1921년 7월, 2-9쪽.

64) 1920년대 전반기 중국에 번역된 핀스키의 작품 중 가장 인기를 모았던 것은 단막극 「불구자(殘費人)」(胡愈之 번역, 『民鐸』 제3권2호, 1922년 2월 1일), David Pinski: Ten Plays, tr. Marie Busch, New York, 1916)와 「배고픈 사람의 이야기(一個餓人的故事)」(陳蝦 譯, 『小説月報』 제16권2호, 1925.2.)이 있다. 전자는 무능력하게 된 사람들을 위한 곳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분노를 담아내고 있으며, 후자는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도시 빈민을 묘사하고 있다. 사회 부정의와 무산계급의 생활에 대한 묘사를 담은 유대인 작가 핀스키의 작품은 당시 중국문단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65) 솔롬 알레이첸(Sholem Aleichem; 1859-1916)이라는 필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그의 단편소설은 유머 속에 애통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 ‘마크 트웨인’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고 선연빙은 번역가의 후기에서 소개했다. 『小説月報』 제12권10호, 1921년 10월, 55쪽.

4. 나오며

인생을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반영하되 현실의 인생을 개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생을 위한 문학관은 외국소설의 번역과 수용에 지침으로 작용했다. 그로써 러시아 문학은 사회악에 대한 고발, 해침당한 자에 대한 동정을 담은 인도적 사실주의 문학으로 수용되었고, 약소민족문학은 약소민족의 울분을 민족적 특징과 조화시켜 독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격찬 받았다. 러시아 문학에서 강한 도덕적 메시지를 얻고자 하는 중국 급진적 지식인들의 수용 관점 탓에 러시아 문학이 가진 예술적이고 미학적인 가치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억압받는 민중을 존중받아야 하는 인격체로 새롭게 인식하고 그들의 처지에 대한 연민의 배후에는 러시아 작가들의 기독교 신앙이 뒷받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다. 또 러시아 문학을 사회주의 10월 혁명을 승리로 이끈 견인차로 인식하고,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에 지나치게 열광했던 선옌빙은 혁명 이후 탄생한 볼셰비키 정권에 대한 객관적 이해에 도달하지 못했다. 일례로 그는 해외문단소식 란에서 볼셰비키 정권의 야만적인 전제성과 극단성에 대한 비판을 담은 스페인 작가 이바네츠의 묘사는 사실과 다른 잘못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⁶⁶⁾ 오랫동안의 억압이 오히려 극단적 행동으로 치닫게 하는 러시아의 민족성에 대한 영국 비평가의 언급에 그는 거의 주목하지 않은 듯하다.⁶⁷⁾

신문학은 사상적 변화를 일으키고 결국엔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선옌빙의 신념에 그 당시 급진적 지식인들은 대부분 동조했다.⁶⁸⁾ 사회혁명을

66) 沈雁冰, 「海外文壇消息: (8)文學家與社會問題」, 『小說月報』 제12권2호, 1921년 2월, 2쪽.

67) 英國 George W. Thorn 原著, 羅羅, 「陀思妥夫斯基之文學與俄國革命之心理」, 『東方雜誌』 제15권12호, 1918년 12월, 3-4쪽 참조.

68) 선옌빙을 위시한 5.4시기 대다수의 급진적 지식인들에 비해 취치우바이는 훨씬 마르크스의 결정론적 견해를 지지했다. 사상적 변화를 일으키는 요소는 정치, 경제적 변화이며, 그로 인해 변화된 사상이 문학 속에 표현될 뿐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따라서 신문학은 사회개혁이라는 임무를 완성할 수 없었다. 문학가는 다만 불안한 사회에 처

이끄는 수단으로써 신문학에 걸었던 희망, 그것이 26세의 젊은 편집장 선연빙으로 하여금 러시아와 약소민족국가의 문학 번역과 소개에 시간과 정력을 온통 쏟아 붓게 한 원동력이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비록 그의 『월보』 개혁은 지나치게 진보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독자들의 외면을 받아 판매량이 급감했고⁶⁹⁾ 그 결과 편집장을 그만두게 되기까지 했으나, 중국번역문학사상 매우 특별한 역사를 창출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1920-1930년대 중국에서 번역된 외국문학 가운데 러시아가 단연 제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⁷⁰⁾, 그리고 다른 잡지매체들도 잇따라 약소민족문학 특집호를 기획하고⁷¹⁾ 약소민족국가문학 앤솔로지가 잇따라 출판되었다는 사실⁷²⁾ 등에서 봤을 때 선연빙 주편시기 『월보』는 민국시기 번역문단을 이끄는 선구적 역할을 했다.

해있는 인생의 고통과 비관을 작품 속에 담아내는 역할을 할 뿐이다. 瞿秋白, 「俄羅斯名家短篇小說集 序」, 앞의 책 248-249쪽 참조.

- 69) 董麗敏, 『想像現代性: 革新時期的『小說月報』研究』,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6, 110-114쪽 참조.
- 70) Leo Tak-hung Chan, What's Modern in Chinese Translation Theory?, *TTR* 14(2), 2001, 223쪽 도표C 참조.
- 71) 월간 『文學』(제2권5호)의 '약소민족문학 특집호(弱小民族文學專號)'(1934년5월1일), 월간 『矛盾』(제3권3,4합호)의 '약소민족문학 특집호(弱小民族文學專號)'(1934년6월1일), 특집호로 기획되지는 않았지만 약소민족문학의 번역을 중점적으로 실은 잡지로 『世界知識』과 『譯文』을 꼽을 수 있다.
- 72) 『弱小民族小說選』(世界智識社編, 上海:生活出版社,1936), 『山靈: 台灣朝鮮短篇集』(胡風編譯, 上海:文化生活出版社,1936), 『桃園: 弱小民族短篇集』(黃源編; 茅盾譯, 文化生活出版社, 1935), 『弱國小說名著』(施落英編; 胡愈之等譯, 啓明書局, 1937) 등이 출판되었다.

參考文獻

- Leonid Andreyev, trans., Thomas Seltzer, *The Seven That Were Hanged*, New York: Boni and Liveright, The Modern Library, 1918.
- Marian Galik, *Mao Tun and Modern Chinese Literary Criticism*, Wiesbaden: Franz Steiner Verlag, 1969.
- ed., Thomas Seltzer, *Best Russian Short Stories*, New York: Boni and Liveright, inc, 1917.
- 『小說月報』11권-13권, 商務印書館, 1920-1922.
- 『學生雜誌』 제6권4-6호, 1919년 4월; 제7권 5호, 商務印書館, 1920.
- 『東方雜誌』 제15권12호; 제17권1호; 제18권11호, 商務印書館, 1918; 1920; 1921.
- 『文學旬刊』 제45기, 時事新報, 1922.
- 『文學』 제90기; 제101기, 時事新報, 1923.
- 羅新璋, 『翻譯論集』, 商務印書館, 2009.
- 茅盾, 『我走過的道路』(上), 人民文學出版社, 1997.
- 周揚, 『周揚文集』1권, 人民文學出版社, 1984,
- 魯迅, 『魯迅全集』第4卷, 人民文學出版社, 1981.
- 嚴家炎 編, 『二十世紀中國小說理論資料』(제2권)1917-1927, 北京大學出版社, 1997.
- 董麗敏, 『想像現代性: 革新時期的『小說月報』研究』,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6.
- 李廣德, 『一代文豪: 茅盾的一生』,
<http://www.shuku.net/novels/zhuanji/ydwhmtdys/mtdys09.htm>
- 殷克勤, 「簡論小說月報在中國現代文學史上的地位和作用(之二續)」, 『陽州師院學報』, 1994.
- 李大釗, 「俄羅斯文學與革命」,
<http://cpc.people.com.cn/BIG5/69112/71148/71151/4847312.htm>
- 李星華; 賈芝, 「俄羅斯文學與革命」附記, 『人民文學』第5期, 1979.

Abstract

Translation and Reception of Western Literature in Modern China :
The Short Story Magazine, 1921-1922

Kim, So-jung

Short Story Monthly i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literary publications in republic of china. This article attempt to research translation and acception of western literary works in the magazine from 1921 to 1922. At this time, Shen yanbing, as editor of was the editor of Short Story Monthly, took over reform of this magazine. He affirmed literature for life, maintained the meaning of reflection of human life. Additionally, he proposed mission of author of new literature in China. Because he supported communistic revolution in China, it is natural that he refused imperial western civilization. At this time, the editor of Short Story Monthly especially introduced and translated western literary works by Russian and oppressed people's authors.

Key words : China, Short Story Monthly, 1921, 1922, Yanbing Shen, Western literature, translation, Repurposing, Russian Literature, Oppressed people's Literature.

투 고 일 : 2016. 9. 10. / 심 사 일 : 2016. 9. 15. ~ 2016. 10. 15. / 게재확정일 : 2016. 10. 16.